

쌀쌀한 늦가을, 스크린으로 떠나는 감성여행

● 광주극장 11월 개봉작

31년 공백 갭 스페인 거장
빅토르 에리세 감독 신작부터

프리다 칼로 삶과 작품세계 담은
다큐멘터리까지 '한자리'

완연한 가을 날씨 속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영화들이 광주극장을 찾는다.

올해 간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부터 31년의 공백을 깨고 나온 기적 같은 신작, 월간클래식 올해 마지막 작품까지 다채로운 개봉작들을 소개한다.

먼저, 스페인의 거장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최신작 '클로즈 유어 아이즈'가 7일 개봉해 상영 중이다. 22년 전 실종된 배우의 행방을 찾으며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 한 노년의 감독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았다.

같은 날 개봉한 '아노라'는 허황된 사랑을 믿고 신분 상승을 꿈꾸며 러시아 재벌2세와 결혼한 '아노라'가 남편 '이반'네 가족의 명령에 따라 돌을 이혼시키려는 하수인 3인방에 맞서 결혼을 지켜내기 위한 이야기다. 젊은 거장 선 베이커 감독이 연출-각본을 맡아 황홀한 비주얼과 상반되는 날카롭고 거침없는 이야기를 펼친다.



오는 9일 스크린에 걸리는 '프리다. 삶이여 영원하라'는 멕시코가 낳은 혁명적인 예술가이자 모든 여성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프리다 칼로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린 다큐멘터리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현실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그녀의 예술세계를 담았다.

'되살아나는 목소리' (13일 개봉)는 재일조선인 2세 다큐멘터리이자 작가인 박수남 감독과 그의 딸 박마의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1985년부터 기록해온 10만 피트, 약 50시간 분량에 달하는 16mm 필름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과정을 담았다. 일본군 위안부 및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오키나와 전쟁으로 동원된 군정용 피해자들을 비롯해 100년에 걸친 재일조선인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전달한다.

20일 개봉하는 '씨앗의 시간'은 수고스럽지만 다정하게 지켜온 우리의 토종 씨앗과 그들이 지켜온 특별한 씨앗을 찾아 다시 순환시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영화다. 카메리는 수십 년간 자신의 씨앗을 받고 심어온 윤규상, 장귀덕 두 농부의 작업을 따라가며 일 년 안에 중첩된 긴 시간을 바라본다.

같은 날 김태양 감독의 첫 데뷔작인 영화 '미망'도 개봉한다. 길을 걷다 우연히 과거 연인이었던 '남자'를 마주친 '여자'의 시간을 따라가는 광화문 로맨스다.

영화사에 빛나는 고전 걸작을 상영하는 '월간 클래식: 20세기 명화극장' 올해 마지막 상영작은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베니스에서의 죽음' (1971)이다. 16일, 24일 2회 상영된다. 24일 상영 후에는 김보연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의 시네토크가 마련된다. 이 작품은 토마스 만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구스타프 말러를 모델로 한 현대 음악 작곡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비스콘티의 염세주의적 세계관과 탐미적 예술관이 집약된 만년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는 작품이다.

상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ACC 미래상 김아영' 전시 대담

'달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 연계...내일 극장3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9일 오후 3시 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ACC 미래상' 첫 수상자인 김아영(사진) 작가 전시 '달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와 연계한 전시 대담을 개최한다.

이번 대담에서는 생생한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 게임엔진을 활용해 제작한 '달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의 제작과정과 작품에 담긴 '시간성', '근대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 2007년부터 영상·설치·공연 등 다양한 미적언어로 발화한 작가의 작업 세계를 주제적 키워드와 비평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달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 전시를 준비한 오혜미 ACC 학예연구사가 전시 기획 의도와 준비 과정을 설명하며, 김 작가는 작품에 대한 소개와 제작과정을 공개한다.

김해주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선임큐레이터가 대담자로 참여해 작가의 작업 세계와 다양한 비평적 시각을 분석한다. 작가와 비평가, 큐레이터가 함께하는 대담 후에는 작가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진다.

현재 ACC 복합전시 1관에서 전시 중인 '달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27분의 3채널 영상과 해시계를 담은 거대 조형물 등으로 구성된 대형 설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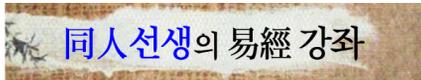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 예술감독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베를린 신극립미술관장 클라우스 비센바흐, 영국 미술 평론가 루이자 벅, 도쿄 모리미술관장 마미 카타오카 등이 '꼭 봐야 할 전시'로 꼽거나 누리 소통망(SNS)에 감탄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최명진 기자

“초구(曳其輪濡其尾), 육이(婦喪其蓍勿逐), 구삼(高宗伐鬼方三年克之)”

〈예기론 유기미〉

〈부상기불물축〉

〈고종 벌귀방 삼년극지〉



〈220〉육십사해설 : 63. 수화기제(水火既濟) 중

제(既濟)괘 초구의 효사는 '예기론, 유기미 무구(曳其輪, 濡其尾 无咎)이다. 즉 '수레바퀴를 뒤로 끌고, 꼬리가 물에 적시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기제지건(既濟之健 初動)	
수화기제	수산건

초효는 양위에 양효로 정위에 놓여 있어 양강한 효다. 초구 여우는 힘이 강해 나아가고자 하나 기제의 초효로서 시냇물을 건너기에는 경험이 없고 미숙해 그 힘으로 수레를 뒤로 끌어 버리고(曳其輪) 냇물을 건너다가 꼬리가 물에 젖어 버려(濡其尾) 건널 수가 없다. 그래서 건너기를 포기하니 허물이 없다.

상전에서는 '수레바퀴를 뒤로 끈다는 것은 의리상 허물이 없는 것'이라고 해 '예기론 의무구야(曳其輪 義无咎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여우가 강물을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해 실행하지만 물에 빠진다. 사태를 낙관해 새로운 일을 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 때이다.

시간이 지나면 일은 이뤄지게 돼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말고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예(曳)는 '당길'에, 뒤에 묶여 있으니 '예기론(曳其輪)이라는 것은 수레의 뒤를 묶어 놓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유(濡)는 '젖을 유'로 유기미(濡其尾)는 '꼬리가 젖는다'는 것이다. 여우는 꼬리를 높이 들고 물을 건너는데 꼬리가 물에 젖어 버렸으니 피곤해서 힘이 다 빠져 물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고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제괘는 다 이뤄졌으니 이제는 멈춰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렇게 하면 무구(无咎)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삼 사효의 감(坎)을 '바퀴, 여우'로 보고, 그 앞에 외괘의 감수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멈추는 상이 있다. 초효는 꼬리로, 상효를 머리로 보니 꼬리가 젖어 나아가기가 어렵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초구를 얻으면, 감(坎)의 앞에 또 하나의 감(坎)이 가로 막고 있어 앞의 위험을 모르고 생각 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곤경에 빠질 때다. 따라서 현상유지가 최선책이다. 현재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고생과 노력으로 심신(心身)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방면으로의 진출이나 확장, 개혁 등은 절대 자중(自重)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로 만족해야 한다. 변패가 시대 난괘 중의 하나인 수산건(水山蹇)이니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휴식이 필요하다. 정수

무사(靜守無事)하도록 해야 한다.

운기, 운세는 마침내 안정을 얻은 시점으로 내부를 탄탄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나아가는 일은 의지 있어도 힘이 따르지 않으므로 흥한 쪽으로 변해 버린다.

바리는 바는 이미 통달했고, 통달하기 위해 피로·과로가 누적돼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나아가 구하려 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여세를 몰아 또 하나를 얻으려 하면 차질(蹇)만 만들어 중단되고 만다. 사업, 거래 등은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업, 개혁, 신규의 일은 하면 안 된다. 현재의 일을 지켜 가야 하나니 무 일에 열중하면 신체를 해치는 일도 발생한다. 초구는 다리를 다칠 수 있으니 과로하지 말아야 한다. 교섭, 담판, 거래 등 지금까지 순조로 왔던 것도 강하게 밀고 나가면 실패하고 뜻밖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전, 이사 등은 생각하지 못한 큰 비용이 들어 흥하고 좋은 장소도 없다. 여행이나 오래 걸리는 외출 등도 삼가야 한다.

혼인은 사람들이 끼여들어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생각대로는 안되는 인연이며, 임태는 어렵고 힘드나 출산은 무사하다. 기다리는 사람은 상황이 멈춘 상이므로 소식 없고 가솔인은 나간 곳이 곤란하여 돌아오거나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며 분실물은 찾지 못한다. 병은 한가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치료한 결과가 다른 병을 발생시키는 일이 있고 회복할 기력을 잃었다. 과로가 주된 원인으로 일어나 공부에 정신을 너무 쓰면 안된다. 물가는 하락 기세 속에서 높은 가격을 당분간 유지한다. 날씨는 맑음과 흐림이 반복된다.

기제괘 육이의 효사는 '부상기불물축, 칠일득(婦喪其蓍勿逐, 七日得)이다. 즉, '부인이 머리의 장식물인 면사포를 잃었으나 찾으려고 쫓지 마라. 칠일 후에 다시 찾게 된다'는 뜻이다.

기제지수(既濟之需 二動)	
수화기제	수천수

이효는 음위 음효의 유순중정의 효로서 이괘(離卦)의 주효이고 구오와 정응하여 문명의 덕이 있다. 구오의 강건중정의 효와 정응해 육이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데 구오는 이미 모든 일에 성공 완수해 크게 육이가 시도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이를 효사에서 육이의 부인이 면사포를 잃더라도 쫓지 말라(婦喪其蓍勿逐), 7일째 날이면 다시 찾을 수 있어 다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七日得)고 표현했다.

상전에서는 '칠일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중정한 도를 쓰기 때문'이라고 해 '칠일득 이중도야(七日得 以中道也)라고 말한다. 육이를 만나면 칠일, 칠개월 안에 되 돌아온다. 비록 포장을 잃어서 속은 상하지만 문제 되지 않고 운은 상승곡선이다. 이번에 못 이룬다 해도 다음에는 이루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불(蓍)은 머리카락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묶는 장

식핀, 또는 머리에 쓰는 면사포, 귀부인이 타는 수레(車)의 햇빛 가리개'라고도 한다. 이 불(蓍)은 이화(離火)로써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인데, 이 장식물인 면사포나 수레의 가리개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부인이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잃어버린 불(蓍)을 찾으러 나가게 되면 기제(既濟)의 어지러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찾으러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찾으러 나가도 칠일 후가 되면 효가 일순(一巡)해 스스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육이를 얻으면, 작은 불행이니 실책이 오히려 큰 안태(安泰)의 원인이 되는 점이다. 좋은 효사로 잃었던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잃음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작은 실수와 불행으로 더욱 큰 불행을 막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패에 수천수(水天需)가 있으니 잘못 범한 일과 실책을 후회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기다리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나아가면 초구의 경우처럼 진퇴양난에 빠지지 꾸준하게 평상시 하던 대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사업·거래 등은 구업(舊業)을 지키고 기다리면 자연히 길(吉)을 얻고, 지망(志望)하는 바도 지금은 손을 대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통달하는 기운이 온다. 혼담은 일단 보류하고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혼담을 실패하여 신상을 잃거나 낙담하기도 하나 머뭇머뭇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오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다리는 사람은 늦게 오고 가솔인은 찾지 않아도 돌아오며 분실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나온다. 병은 하체의 열로 인해 대소변의 불통(不通)으로 과롭고 오래 가는 수가 있으니 치료를 서두려야 한다. 날씨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로 변하고 물가는 고가에서 유지된다.

기제괘 구삼의 효사는 '고종 벌귀방 삼년극지, 소인물용(高宗 伐鬼方 三年克之, 小人勿用)이다. 즉, '고종이 귀방(曷)을 공격하더라도 삼년이 걸려야 이기니, 이러한 소인을 쓰지 마라'는 뜻이다.

기제지둔(既濟之屯 三動)	
수화기제	수뢰둔

삼효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양위에 양효가 있는 과강부중(過剛不中)의 효로 상육과 정응해 매사에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는 정벌의 상으로 지나치게 과격하다. 구삼은 내괘의 극에 있어 기제괘의 좋은 때가 끝나고 흉이 싹트는 자리이다.

상전에서는 '삼년 만에 이겼다는 것은 몹시 피곤한 것'이라고 해 '삼년극지 비야(三年克之 憊也)라고 말한다. 고종은 은(殷)나라의 중흥군주다. 시호가 무정(武丁)으로 무정 32년에 귀방지방을 공격해서 34년에 정벌했다는 역사상의 사실이 효사로 돼 있다.

구삼은 내괘의 끝에 있어 기제괘의 안태(安泰)의 정상(頂上)에 있을 때이니 안태에 빠져 민심이 나태할 때이다. 나태에 빠진 민심을 고무(鼓舞)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먼 나라의 오랑캐를 정벌하는데 삼년이나 걸려 승리를 했다면, 국력이 피폐해져서 오히려 기제의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효사는 이러한 때에 소인을 잘못 쓰면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롭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삼년에 걸쳐 전쟁을 해서 적을 압도하는 운이므로, 크게 성취함을 얻게 되나 운을 다해 적과 싸워 이겼으므로 승리했지만 몹시 피곤하다. 무모한 행위로 득실(得實)이 없다. 소인물용이란 효사는 후세인들에게 경고하는 교훈이다. 득이 없는 오랜 전쟁을 일으켜 백성의 생활은 파멸해지고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킨 이러한 소인은 쓰지 마라!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구삼을 얻으면, 아무 일도 없는 권태에 질려서 또는 권태를 막기 위해 쓸데없는 일을 도모하여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무사(無事)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변패가 수뢰둔(水雷屯)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이 있고, 변패의 호괘(互卦)에 수산건(水山蹇)의 위험 초조한 기세가 있어 할 수 없이 군사(軍士)를 움직이는 과감한 행위를 통해 타개를 도모하려고 하나, 오히려 과공을 부른다.

운기(運氣)는 안태로움 속에 권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것에 손을 대면 필패하고 시작한 일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막혀서 의외의 고민만 늘어간다.

좋은 협력자나 아랫사람을 얻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되돌릴 수 없는 실패를 초래한다. 사업·거래 등에서 신규의 일은 불가하고 몇 년이 걸려도 결론이 나지 않으며 이뤄져도 실속 없는 것이다. 지망하는 바 등은 포기할 수 밖에 없고 구업(舊業)을 지키고 야심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물가는 오르기 어렵고 변동이 있다.

혼인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뤄져도 좋은 인연이 아니며 위장 혼인일 수 있다. 임태는 어렵고 의사의 손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고 분실물은 나타나지 않으며 가솔인은 나간 곳에서 곤란에 처해 있다. 병은 오래 끌어 악화돼 가고 위험하다. 날씨는 비가 오고 여름에는 뇌우가 친다. <동인·도시계획학 박사>

[동인선생 강좌 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 : 명리사주학, 역경해설, 매주 토·일 각 4시간, 1년 과정
-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 양성, 2024년 11월 초 개강

